

행복한교회 목장 예배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목녀님들께 배포해드린 목장모임 표준안 참조)

1. 식사 모임 (애찬)

-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밥=가족, 간식=손님).
-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녀와의 시간 (올리브 블레싱)

- 자녀가 한 명(태아포함)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올리브블레싱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공동체(목장)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찬양 1-2곡을 부릅니다.
- 나이순으로 감사한 것과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눕니다(목회일기에 포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목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없을 경우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 올리브블레싱 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목장을 따로 진행합니다.

3.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 찬양부장이 인도

4.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20분 이내)

- 말씀나누기 진행자가 담당합니다(성경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에 초신자가 말으면 좋습니다).
- 모든 목원이 간단하게 돌아가며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누는 중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내용을 나눕니다.

5. 연합교회 광고 나누기

- 주보를 활용합니다.(VIP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6. 목회자 칼럼 읽기

- 지난주 목회칼럼을 읽어줍니다.(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공유)

7. 목장 약속문 함께 읽기

8. 삶 나누기

- 지난주 기도제목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나눕니다.
- 감사했던 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나눔 시 “기도하면 됩니다” 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목장에 나온 지 오래된 분은 깊이는 유지하되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VIP 등 새로 오신 분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9.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 모든 나눔 후 두 명 정도씩(부부, 가족 등) 묶어서 짧게 중보기도합니다.
- 목원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마지막에 목자가 장소를 제공한 목원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 선교지와 VIP를 위한 기도

- 후원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선교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 VIP는 가족, 친지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자주 만나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활용합니다.

11. 목회일기 작성

목장모임 말씀 나눔지

(4월7일 주일설교/예레미야29:11-13/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 팀의 멤버가 되라!!)

11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2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13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지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주께 항복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 외에도 “내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건드리기 원합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16절에 보면 “2)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나오는데, 각주에 보면 “2)여호와와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개역개정) 혹은 “여호와와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NIV)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전력이 우세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셨기에 때문에 이긴 것인데,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기로 결심하신 것은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내 머리도 넘지 못하는 기도, 내 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과 경험과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기에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이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롬8:34, 8:26)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초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나눠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라면 모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주십니다.(롬8:9) 하지만 이것 하고 성령충만은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충만은 ‘전적인 항복(Absolute Surrender)’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충만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므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지식이 많고, 방언을 하면 성령충만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충만 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우리의 본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리며 항복시키는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로서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평소에 기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SOS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이런 비상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풀 하실 때 금방 그 풀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연습이 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 어렵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문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문을 따라서 흉내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가 익숙해질 때 하나님이 비상상황에서 믿고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팀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항복’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새로운 삶에서 배우는 견고한 진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기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칼럼

우리가 좋아서 한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우리 교회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로 사역을 떠나기 전에 함께 공부했던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최영기 목사님의 책을 선물 받은 것은 2002년 초였지만,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그 책은 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냥 책장 안으로 TT 그런데 2006년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로 와보니 원로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교회’가 제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가정교회를 배우러 간 곳은 서울에 있는 열린문교회(지금은 양주에 있는) 였습니다. 목사라고는 하지만 처음 본 사람에게 6박 7일 동안 안방을 내주면서 섬기는 성도들! 그 섬김을 감당하는 그들의 얼굴 가운데서 읽히는 기쁨과 행복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 그렇게 세미나를 수료한 목사에게는 봄가을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은 가정교회를 하거나 관심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번 컨퍼런스(5월)도 천 명 정도가 등록할 것 같지만, 초창기 컨퍼런스는 한 200명 가량 되어서 가정교회를 이미 시작한 교회 중에서 역량이 되는 교회가 섬겨주었습니다. 2박3일 동안 강사님들로부터 배우는 것에도 은혜가 많았지만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오전 오후 교회 로비에 너무 예쁘게 데코되어 차려지는 수제 간식들 사진 찍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아갈 때 그 교회에서 지역 특산물 하나씩 손에 들려주었지요. ‘와~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 참석자들은 정말 그분들에게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평세를 가면 이런 섬김을 받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목자연합 수련회나 컨퍼런스에서는 그렇게까지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국제가정교회사역원에서는 가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목연수를 섬긴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가이드를 어겼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까지 준비했어요?”라고 물으실 때 제가 “저희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손목사님! 성도들의 얼굴에 그 행복이 묻어나네요~~” 첫째날 마지막 기도회 시간에 ‘이런 섬김을 해내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시던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씩” 먹어도 모자를 것이라고 한 사람들을 ‘원대로’ 배불리 먹이시며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셨을 예수님, 그렇게 그날 뱃세다 들판에서 우리들을 섬기셨던 예수님 모습을 상상하며 보낸 행복하고 감사한 목연수였습니다. -손목사-

☎34068대전시 유성구 반석로11번길90-23(반석동661)

☎(042)826-9191~4, FAX(042)822-0691

<http://www.inhappy.org>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첫째 주는 제외)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등록절차>를 보시고 새가족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감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헌신적인 섬김으로 34차 목자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찬양, 진행, 식사, 간식, 주차, 안내, 방송, 청소 등 한 마음 되어서 애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목자임명식

오늘 4부 예배시간에는 일본도교목장의 목자임명식이 있었습니다.(김건희 목사) 많은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 일일특새

4월 일일특새가 내일 오전 5: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4. 제6기 기도의 삶 세미나

제6기 기도의 삶 세미나가 지난 화요일 개강했습니다. 시작하신 14분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시고 6기 중보기도에도 많은 재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4월29일~7월28일)

5. 제3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4월은 재정비하면서 내가 해보지 않은 중보기도팀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일주일에 1회 단독방을 통해서 하는 기도이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교회에 기도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QR코드 신청)

6. 신관중앙목장 선교후원행사

다음 주일에는(14일) 신관중앙목장(정효섭목자/노윤정목녀)이 선교후원을 위해서 커피와 차 행사를 갖습니다. 신관중앙교회(공주)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유아세례식

어린이주일(5월5일)에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은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8. 총목자모임

4월 총목자모임은 27일(토)에 있습니다.

9. 새 목장이름

김성은(최선진)목자께서 섬기시는 목장은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기곤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해서 브라질 목장으로 부르겠습니다.

10. 2024년 가정교회 평신도세미나 안내

1)4월(양주) 5월(화성,전주,안양) 6월(인천,순천,부산,판교,구미,대전,화성) 7월(대전,증평) 8월(충주,천안,인천) 일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이대명/전정원집사님(불리비아목장)이 12~14일 용인성심교회로 평세 다녀오십니다.

11. 교우소식

1)결혼: 박태준형제(박명일/유지향집사), 신유경자매의 결혼예식이 4월20일(토) 오후3시20분에 루이비스컨벤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2)박광옥선교사님(필리핀카비떼목장) 12(금)~15일(월)까지 방문하십니다.

성구암송

예레미야 29: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